

서부발전,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확대

4년간 연구비 1340억원 투자 ... 2011-2012년 온실가스 26만톤 감축

한국서부발전(대표 김문덕)이 <Carbon Footprint Seoul 2013> 행사에서 국내 발전기업 최초로 CTS (Carbon Trust Standard) 재인증을 받았다고 8월9일 발표했다.

행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카본트러스트가 주관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 영국대사관 등이 후원했다.

한국서부발전은 2011-2012년 온실가스를 26만톤 감축했고, 4년간 온실가스 감축 연구비로 1304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실적을 인정받아 재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“전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”라며 “전력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국서부발전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 국내 최초로 유기성 고형연료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연간 13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. <저작권자 한국경제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8/09>